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8일 (음력 2월 12일) 월요일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도탈락 7500명

광주·전남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수가 연간 7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이 두 자릿수인 학교도 두 곳이나 됐다.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진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 알리미'를 토대로 중도탈락 학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17학년도) 광주·전남지역 22개 4년제

조선대 1400여명 최다...목포대-광주대 순

중도탈락률, 한려대 19.4%·송원대 10.4%

취업난·진도-적성 불일치 등 복합적 요인

대학 재적학생 13만4851명 가운데 중도탈락한 학생은 7490명(5.6%)에 달했다.

100명 당 5~6명 꼴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셈이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치

(4.5%)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광주는 5.2%로 7번째를 차지했다.

탈락 사유로는 지퇴가 48.2%인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복학 2769명(36.9%), 미등록 740명(9.8%), 학사경고 142명(1.9%) 순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 지퇴와 학사경고는 적은 반면 미복학과 미등록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퇴와 미복학은 조선대, 미등록은 호남대가 가장 많았고, 학사경고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합쳐 100명이 넘었다. 유급과 수업연한 초과로 중도탈락한 경우도 2명 발생했다.

전체 중도탈락 학생수는 조선대가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대(692명), 광주대(668명), 전남대(667명), 호남대(613명), 순천대(603명) 순이다. 100명 이상인 대학은 조선대가 유일하고 전국적으로도 9곳에 불과하다. 500명 이상인 대학은 광주와 전남에서만 7곳에 이른다.

중도탈락률은 사립대인 한려대가 708명 중 137명이 재학 중 그만 뒤 19.4%로 가장 높았고 송원대(10.4%), 남부대(9.4%), 광신대(8.5%), 세한대(8.05)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도탈락률 5% 미만은 광주교대, 광주여대, 광주과학기술원,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영산선학대, 전남대, 전남대 제2캠퍼스 등 8곳에 달했다.

중도탈락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전공과 적성 mismatch와 졸업 후 취업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4%대 중반인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탈락률은 1~2%대여서 단순 성적보다는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한 전공 적합성 평가가 보다 요긴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간판' 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로와 전공선택 지도가 필요하고, 대학 입장에서 내부 혁신과 아울러 취업률에 대한 고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환·조인호 기자



매화꽃 향기 따라 눈부신 봄이 왔다네

지난 16~17일 매화축제가 열린 해남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상춘객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다. 매화꽃 개화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매실농원에는 가족단위 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Photo 漫評

공복 아닌 충복?

군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군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해 말썽이 되고 있다. 정중순 군수 공직자들이 그들로 지난 11일 A실장과 B과장은 유치면 봉덕리 덕리마을 주민 20여명이 민원과 관련 군수면담을 요청한 뒤 군수실을 방문하자 집안인 취급하듯 내내 나가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백보를 양보해서 주민들이 면담요청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한들 경찰 운운한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취할 행태가 아니었다. 이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군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은 인종에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대해 주민들은 '군수와 측근을 눈치 보는 공무원들이 문체 리며 '군수의 눈에 들기 위해 일하는 충복이 되려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정중순 정중순군수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장홍=송호빈 기자



주민들



정중순



주민들

5·18재단, 美국방부 기밀문서 확보 나선다

1980년 주한미군 정보요원 증언 계기

"집단발포 배후 담은 문건 찾아 분석"

5·18 기념재단이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1980년 5월21일 전두환씨가 광주를 찾았

다가 서울로 돌아간 직후 집단발포가 이뤄졌다는 전직 주한미군 정보요원의 증언을 계기로 미 국방부 문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다.

5·18 기념재단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보고했던 김용장 전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미 국방부 기밀문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미 국방부 문서(기밀 해제 대상) 공개에 협조해달라고 주한 미국 대사 등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도 요구하고, 5·18 집단발포 배후를 살필 수 있는 문건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틱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6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

는 국무부 기록이 70~80%에 달한다. 국방부 기록은 10~20%에 불과하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에서 미국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직접 확보한 미 국방부 자료는 없고, 전문가들에게 전달받은 자료만 일부 갖고 있다"며 "발포 명령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 기밀문서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

